

*팀NO:2018-18

2018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러시아

| 공항 :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하바로프스크

3. 사역기간 : 2018 년 7 월 11 일(화) ~ 7 월 18 일 (화) / (7)박(8)일

담당

분과장

위원장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집사	정영미	Jung Young Mee	5	0	3836					
2	총무	집사	이동열	Lee Dong Yeol	14	0	95-728					
3	서기	집사	양윤영	Yang Yoon Young	3	0	2007-0341					
4	회계	안수집사	전종욱	Jeon Jong Uk	12	0	97-102					
5	의료	권사	주순희	Joo Soon Hee	15	0	89-674					
6	통역	사모	강가일	Kang Ka Il	1	0	91-426					
7	찬양	집사	이수정	Lee Su Jeong	6	0	98-662					
8												
9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수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교구(부서)장

교구(교육)위원장

427

주문하신 상품정보

	상품/옵션정보	수량	상품금액	배송비
	제품명: POLAROID Z340 3x4 인치 컬러 폴라로이드 필름 옵션: 기본	2개	86,700원	선결제 2,500원 STANDARD

결제내역

주문금액	89,200원	-	할인금액	0원	=	결제금액	89,200원
구매상품 총 1개						11Pay(휴대폰)	89,200원
· 상품금액	86,700원						
· 선결제배송비	2,500원						

주문 완료 확인

5/31일 결제완료!

러시아령 하바로프스크 (장영미)

(조선전에 거주하며 러시아 인민령 하바로프스크에서 몇달 시간을
가졌을 때, 주위의 영향을 듣고 이번인 하바로프스크 7월 11, 18일
시간을 가졌다고 기록했다.

조선령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하바로프스크에서 듣고 나아갔다.
7월 13, 14, 15일 3일간은 조선령을 가서, 이 기간에 사육 준비하기 위해
기르거나, 사육한 동물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30명 남의
4시간 동안 함께 움직이며, 북동쪽으로 갈라 붙이고 예수님 대해 영상과 불꽃
불꽃을, 북동쪽으로 갈라 붙이고 2시간 동안 동으로 250명 남의
움직임, 북동쪽으로 갈라 붙이고 영상만 만든다 할지라도 되고 그날은 사육이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다. 그리고 주일날 마지막 조선령을 가서 강가에서
사육한 동물들을 보면서 동인들이 열심히 수확하고 하는 모습,
6명씩 잡사냥한다. 우리 동인들이 사육 "나 이야기" 불꽃을,
3명씩 나눠 10명씩 함께 사육 영상은 다음 영상 촬영을 한다.
동인들이 사육한 불꽃으로 사육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음 촬영한다.
북동쪽 동인들이 안 다녔던 동인들이 돌아오게 6명 남의 동인들이
그런 아기가 많이 나와 하바로프스크 동인들이 사육한 동물들 함께 가고
그리고 아기가 많이 돌아오게 한다.

마지막 날은 동인들이 사육한 동물들 특히 친구 부르고 전 동물들(동인)
북동쪽 동인들이 북동쪽으로 촬영해주고 영상 찍어준다.

2주 동안의 친한 동인(동인)도 ~~북동쪽~~ 부르고 북동쪽으로 돌아온다.

하바로프스크 준비한 동물들 한나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러시아를 다녀 와서

주 순 희 권사

주님 감사합니다.

러시아 농아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다를 수 밖에 없는 농아인들의 삶과 믿음의 모습들, 그
리고 다른 문화와 정서를 하나가 되게 하는 훈련은 주님의 십자가뿐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한국말과 한국 수어, 러시아말과 러시아 수어, 또 고려인의 언어들까지 40여명이
모여 방언을 하듯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손짓과 몸짓,
심지어 발짓까지 액션을 취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니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
났습니다. 브니엘 농인교회도 마치 다락방처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끝난 후 사탄의 방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줄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남자 성도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강단으로 올라가더니
고맙다고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666이라는 숫자를 들먹이며 말을 하는데 소름이
끼쳐 저는 선교위원회에 긴급히 전화를 해서 666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악마의 숫자라는 것을 확인하여 전해 듣고,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며,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음을 알려 주며 성경의 일점 일획도 빼거나 더하여 가르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들어 알려 주었습니다.

돌아오며 생각해도 사탄의 방해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분명한 해답은 성경 안에
있음을 알려 주고 또한 성경의 중요함을 부르짖고 돌아오는 선교여행이 되었
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여 러시아 땅에 있는 농인들의 영혼을 위한 선교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선교팀이 구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성극, 풍선아트, 복음팔찌, 글없는 책, 찬양 등을 열심히 연습하였고 주님의 말씀으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팀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땅에 주님께서 준비한 영혼은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만났습니다. 엘레나라는 하바로프스크 농인협회 직원이 우리를 마중 나왔는데 이동 중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엘레나는 17살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여 주일학교 교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후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마침내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선교팀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을 보니 주님이 엘레나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우리 선교팀이 초청잔치를 열 때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엘레나의 마음을 열어 주셨고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바로프스크 농인협회에서는 주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올라(농인협회 회장)의 가정, 올리야 가정, 리자(올리야 엄마), 빅토리아(올리야 동생) 등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농인들이 초청집회를 통해 다시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는 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초청집회 때마다 참석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어린 손자가 고열이 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교팀이 병원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왔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으면서 기도부탁을 받았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되고 주님이 크게 쓰시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 러시아에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초청집회 때도 이단교회 성도가 와서 방해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농인 성도들이 여호와 증인 때문에 힘들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브니엘농인교회에 주님의 귀한 종으로 신실한 목사님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흥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할렐루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의 브니엘농인교회를 사랑해 주시어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교회 전체가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준비한 성극, 풍선아트, 복음팔찌, 글없는 책,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성도들이 변화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였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차량에 매달려, 하바르브스크의 빈민 영호들을 만나다.

에베레스트 양운명

CMTC를 마치고서까지 러시아에 갇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베타를 몇번 대크럽고
머리 싸매고 하는 생각했었다. 타격성이 러시아를 여러번 대크럽고 얼마나 신경쓰는지 가늠할 정도로
있었는데, 러시아의 반응은 농아인들 많음이 너무 약해서 견뎌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10대에 들어갔다.

사흘(11일) - 14일 18일까지 8일간 러시아 하바르브스크에 대크럽다. 파랑에베레스트 가시이 머무르던 많은 분
들의 기도를 힘입어 무척 기쁘게 주축하는 동안, 공기가 나빠져 양운명. 머리 고민 느낌은 있다.
나중에 알고보니가 영호들의 고향이라고 했다. 귀나타리아 전라성, 러시아 농아인 옥사지나,
러시아를 떠나고 호텔, 프로그래밍, 중앙전도, 농아현상 등에 대해 여러 가지로 나누었다.

하바르브스크의 머무름을 기쁘게 방대포에 중국 동북청 중 하나인 흑룡강성이 머무름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 즉 러시아인, 카자흐인, 몽골인, 중국인, 북한 등이 서로 어울리며 살고있다고
한다. 그곳 농아인의 수가 너무 약한지 뭐라고 한다. 옥사지 하바르브스크 농아인 협회장을
경우하고 있으며 농아인의 권리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브니엘 교회의
리더로 정하고 있다. 농아인의 능력이 옥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브니엘 교회에
저명한 농청인들이 없었다. 매년 보대중반부터 80대까지 농아인들과 어진 두꺼비들 교회를
삼고 있다 한다.

아무리 생각해서 전도하면서 어려운 성경을 선포하려 할수록 가난 농아인, 옥사지나 내전을
피해 받게 머무르던 농청인. 중국과면서 지기광산인 쇼바를 만나 예수님을 전했다. 그 ~~전~~
현상을 보고 교회를 사용했던 브니엘 교회에서 3일동안 하루하루 운동을 하는 게임도 하고,
OTM이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을 20분마다 상영하는 북음파지를 ~~북음~~
대중에게 하면서 예수님의 피, 피, 십자가, 흠, 새생명 등을 이바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시간동안 음과 주스, 향사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루게 했다.

주일성, 옥사지 에베레스트 드립과 성경요를 보여주었고 조짐을 나누어 양대회를 열었는데
온회를 서로 나누었다. 브니엘로 가까운 마을에 주축하지 않고 도망쳐서 묘나 큰물리기 바깥에서
3일간 기도하며 한가한 모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간 묵념이
계셨던 생각이 나게 만들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새생명을
얻었던 것을 묘나 큰 물리기에서 의해 한가하면, 나눴던 전도 ~~전~~ 같았다.
그리고 믿음은 잃었다가 옥사지의 교회를 통해 회복한 옥사지 옥사의 가족, 러시아의 가족,
옥사지의 가족, 그리고 마호의 가족은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했다.

브니엘은 농아인의 영혼이라고 한다. 브니엘 교회에서 농아인들이 어떻게 주축하고
머무름을 해서 나눠주려 재능과 인사를 직접 정리한다. 그와함께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아름답다. 저명한 농청인들을 많이 전도해서 브니엘 교회를 더욱 북돋아주고
말사명을 밝게하게 하기 ~~전~~ 이따고들, 마고 성경이 양운명 ~~전~~ 양운명의 바깥에
주축 ~~전~~ 기도한다.

하바롭스크 단기선교...

단기선교 활동으로 에바다부 7명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정영미 팀장님이 ~~몇번~~ 하바롭스크 단기선교 활동을 했던 기억을 하고 추억을
남겼어요... 예전부터

~~선교지~~ 선교지에 도착하여 하바롭스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농민들이 만나고
함께 교제를 하고 복음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찬양을 불러고
글을 하고, 풍선아트를 하고, 종이접기를 만들고, 성극까지 하는 활동을 하고
농민들이 뜨거운 열정을 ^{복음팔자를} 보여 주지만, 명적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절단한 성도들이 보며 하나님을 행동하는
마음을 아프게 느꼈어요. 그 영혼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바~~ 베푸는 감사와 기쁨은 영원히 잊지 못할 하바롭스크
농민들이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하바롭스크 농민들이 사랑합니다...

이 동 연